

가을, 산지천 물들일 미술축제... '야간축제'로

제7회 아트 페스타 인 제주 오는 10월 14-23일 10일간 깃발 초롱전, 미디어파사드 등 여러 빛깔 전시 볼거리 풍성



10월 산지천 일대를 예술로 물들일 '아트 페스타 인 제주'가 찾아온다. 특히 올해 축제는 운영시간을 밤 9시까지 늘려 '야간축제'로 확장을 꾀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 의미를 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주목된다.

제주시가 주최하고 아트 페스타 인 제주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아트페스타 인 제주'는 올해 7회째를 맞는다. 지난 2015년 제주시 이도1동에서 개최됐던 제주 국제아트페어가 2020년부터 시 단위로

승격되면서 산지천 일대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 2월 총감독으로 위촉된 오창윤 제주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3월부터 가동된 사무국은 현재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올해 축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16일엔 아트페스타 인 제주 사무실에서 '아트 페스타 인 제주 2022' 행사 세부 계획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오 총

감독은 기존 미술전시와 다른, '아트 페스타 인 제주'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며, 신진 작가 발굴 및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는 올해 행사 방향성을 강조했다.

올해 '아트 페스타 인 제주'는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펼쳐진다. 전시주제는 'LOOP:feat. 연결의 시선'이다. 산지라는 공간, 섬이라는 공간, 청년작가와 중견작가, 과거와 현재, 개발과 환경, 시

간의 흐름 등 그 속에 숨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연결이란 큰 틀에서 제시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행사 기간 산지천 갤러리와 산지천 일대는 총 103명의 참여 작가(도내 70%, 도외 30%)들이 주제에 맞춰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실내 및 야외 입체 전시, 깃발 초롱전 기획전 등 여러 빛깔 전시로 풍성하게 채워진다. 특히 실내 전시는 작가 수를 줄이는 대신 일률적 크기의 작품 전시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출을 꾀했다.

가수 루시드폴이 산지천 일대의 소리를 채집한 음향을 선보이는 사운드 스케이프와 산지천 갤러리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는 새로운 시각과 청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야간 도슨트, 토크 콘서트,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도 예정돼 있다.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mailto:ejoh@ihalla.com)

'구석기에서 일제강점기' 특별한 유물

제주대·전국 10개국립대 박물관 전시회 제주 첫 소개되는 각 지역 유물감상 기회

제주대학교 박물관(관장 백영경)은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교 70주년 기념 '형형색색-백년지계' 특별전시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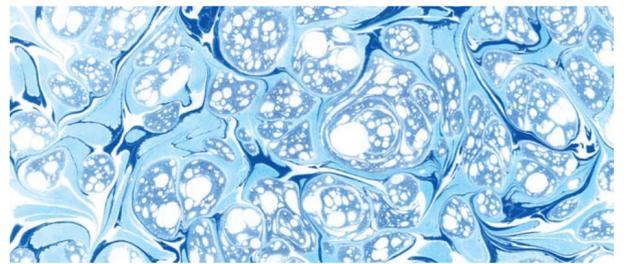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제주대박물관과 전국 10개 국립대 박물관의 연합전으로 각 대학 박물관 대표유물 40여 점을 선보인다. 참여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공주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충남대다.

전시 유물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유물들이 대부분이다.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형형색색의 특별한 것으로 구성됐다.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 구석기시대부터 수천 년에 걸쳐 각색된 '천전리암각화 탁본', 신라의 '금동관', 가야의 '토기그릇과 오리모양 그릇', 마한의 '대형 옹관'이 소

개된다. 또 김유신장군묘의 '12지 신상 탁본', 조선시대 읍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주부지도'와 겸재의 '금강산불정대', 장승업의 '기명절지도 병풍', 정조와 고종의 글씨도 함께 선보인다.

일제강점기 의병들의 사기 진작과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윤희순 여성 독립운동가의 '의병가사집'도 전시된다.

백영경 박물관장은 "우리나라 전역 국립대 박물관이 힘을 모아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 형형색색의 유물을 통해 장엄함과 신비로움은 물론 선조들의 풍취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백년지계의 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제주대박물관도 새로운 향을 향할 도약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시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도 박물관을 개관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mailto:sycho@ihalla.com)



홍승희 작 '빛에 물든 바다1'

빛에 물든 바다

홍승희 섬유 개인전

다채로운 색을 머금고 있는 제주 바다. 홍승희 작가는 바다의 다양한 색과 더불어 파도의 자유로운 물결 등을 작품에 담는다. 그가 그려낸 '바다 이야기'는 심현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개인전 '빛에 물든 바다'에서 만날 수 있다.

작가는 마블링 기법 중 에브루 기법을 통해 작품을 제작했다.

에브루 기법은 전용 염료를 사용해 다양한 색의 물감을 제작한 후 물감을 물 위에 뿌려 종이에 염색하는 기법이다.

물감을 뿌리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형태를 만들어 작가가 원하는 무늬를 표현할 수 있다.

홍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종이 위에 '빛에 물든 바다'를 염색해 텍스프린팅으로 실크백지와 실크스카프 등 다양한 원단에 표현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오른지기자

문화가 짝지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이 기획공연으로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를 선보인다. 공연은 오는 21일과 22일 각 오후 7시 두 차례 제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사업'에 선정되면서 공연비 전액을 지원 받았다.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는 연출가 박근형이 이끄는 극단 골목길의 대표작이다. 6·25전쟁 전후를 배경으로 가족을 내팽개치고 세상을 방랑하는 아버지와 이런 아버지를 지켜보는 딸의 애증을 웃음과 눈물로 버무린 작품이다.

공연은 무료며, 사전 예약은 문화예술진흥원 예매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예술공간 이아 입주작가 공모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23년 예술공간 이아 레지던시 예술지유컬렉션티브 이아로(路)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거주 중인 시각예술인(개인 또는 2인 프로젝트)으로 '치유'를 주제로 한 창작 활동을 위한 창작스튜디오와 지원금이 지원된다. 선정된 예술인들은 결과보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참여 희망자는 재단 및 예술공간 이아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오는 28일까지 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10월 중 서류 및 인터뷰 심의를 진행해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입주작가들의 충분한 창작활동 기간을 보장하고, 좋은 작가를 선발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조금 이르게 진행한다"고 전했다.

국제현대무용축제 제주공연

대한민국 최대의 국제현대무용축제 제주공연 '모다페 in JEJU 베스트 컬렉션(MODAFE in JEJU Best Collection)'이 이달 30일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펼쳐진다.

모다페(MODAFE: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는 (사)한국현대무용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최장수 무용축제로, 제주지역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지역과의 네트워크와 소통을 콘셉트로 하고 있다.

이번 '모다페 in JEJU 베스트 컬렉션' 공연은 유명 현대무용단의 대표작으로 구성됐다. 모던테이블(햄베스 Ham:beth), 박관정(신도시), 블루맨스씨어터2(시간 위의 시간), 빛마루 무용단(The New Human Race) 등 기대되는 안무가들과 무용단이 출연해 유니크한 현대무용의 아름다움과 세련미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관람료는 R석 2만원, A석 1만 5000원, B석 1만원. 오른지기자

대기고 전국연극제 무대에

올해 제25회 제주청소년연극제에서 대기고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오는 11월 말양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제주 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지난 7·8·13일 열린 이번 연극제에서 '오늘 무슨 날이에요.'를 무대에 올린 대기고가 최우수상을, '낭만의 자유에게'를 공연한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기고는 개인부문에서 우수 지도 교사상(정동근), 우수 지도 강사상(문미영), 연출상(문현우), 연기상(홍원진)도 휩쓸었다. 스태프상은 제주여자고등학교가 받았다. 최우수연기상은 제주외고 전유비에게 돌아갔으며, 제주외고 교문희, 제주대사범대부설고 장우진, 남녕고 이가연도 각각 연기상을 수상했다.

한편 제26회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 제주예선대회를 겸한 이번 연극제에는 총 5개팀이 참여해 열연을 펼쳤다. 오른지기자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고품격 여행 패키지

제주출발전세기

오사카2박3일



[9/29] 단 하루

849,000

퍼플섬(진도) 4인실

알찬여행 1박2일

9/23, 10/1

380,000

강원도 2인실

실속여행 2박3일

매일출발

480,000~

동남아유럽

허니문 코사무이 등

상담환영

단독행사/스낵사진

설악산 4인실

단풍여행 2박3일

10/21, 10/28

564,000원

내장산 4인실

가을여행 2박3일

10/28, 11/4

539,000원

서해안 4인실

감성여행 2박3일

10/07, 11/12

510,000원

상품가격은 현금결제 기준이며,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발생합니다. 불포함 사항 : 부가세 및 개인경리